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7. 28.(목)
담당 부서	평생직업교육국 학원정책팀	책임자	팀 장 이현미 (044-203-6218)
		담당자	사무관 오인택 (044-203-6380)

## 여름방학 기간 원격교습 권고는 새로운 방역규제가 아닙니다.

- 언론사명 : 한겨레 등 / 2022. 7. 28.(목)
- 제목 : 학원만 원격수업? “돌봄·입시 공백 어쩌란 건가”

### <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- 여름방학 기간 학원에 대한 원격교습 권고는 코로나19 발생 직후(2020년 상반기)부터 지속 추진되어 온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방역규제가 아닙니다.
-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다수의 아동·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  - 이에 교육부는 학원 방역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자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학원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, 취식 자제 권고, 종사자 백신접종 독려 등을 요청(시도부교육감회의, 7.25.)한 바 있습니다.
- 또한, 지난 7월 27일(수) 중대본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직후(2020년 상반기)부터 지속 추진되어 온 원격교습 권고를 재안내하고, 비대면 교습이 가능한 학원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, 단체 활동 자제 등도 권고하였습니다.
  - 아울러, 교육당국과 학원단체의 방역점검 협력은 그간 방역관리를 위해 노력해준 학원 등의 자율적인 방역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

-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청 및 학원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강생 등에 대한 자발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,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.